

부상 이덕화, 김스한 채 대조영 복귀



4일 KBS 1TV 드라마 '대조영'(극본 장영철, 연출 김종선·윤성식)을 촬영하던 도중 낙마해 원쪽 팔복과 코에 금이 가고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탤런트 이덕화가 25일 복귀한다.

이덕화 측은 "현재 원팔에 김스를 한 상태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돼 25일 경북 문경 야외 신부터 촬영에 합류하기로 했다"면서 "김스 부분은 의상을 이용해 기술적으로 가립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조영'은 9월 16일부터 방송되 예정인 데다 이미 찍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덕화의 복귀를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상황. 하지만 이덕화는 "더 이상 활동을 미루면 제작진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조기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덕화는 이드라마에서 거란족 출신 당나라 명장 설언귀 역을 맡고 있다.

이덕화는 이에 앞선 16일 현재 출연 중인 시트콤 KBS 2TV '웃는 얼굴로 돌아오라'의 촬영에도 임한 바 있다. 시트콤에서는 병원장인 이덕화가 해외 출장에서 부상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딸이 다시 부르는 '아버지의 노래'



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아버지 추모 공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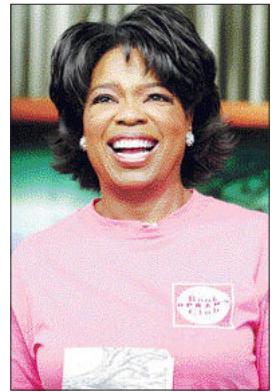
요절가수인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3세때 모습) 양이 아버지를 추모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공연을 준비중이다.

올해로 사망 10주기를 맞아 김광석의 3집과 4집, '나시 부르기' 1집과 2집을 뮤직 페어리 음반 2장을 25일 발매하는 음반유통사 만월당은 "이제 10대 소녀가 된 서연 양은 그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했다"며 "서연 양은 10년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추모 무대를 마련해준 가수들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아버지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작은 공연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연 양은 전문 가수 지망생이 아닌 아마추어로, 아버지의 동료와 팬들에게 '저 이만만 커어요'라고 인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서연 양이 직접 부르는 김광석 노래가 어떻게 다 가을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연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의 부인 서해순(41)씨는 남편을 위한 뮤지컬 제작도 기획중이며 9월께 뮤지컬 제작 발표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아공에 여성인재학교 세우는 오프라 윈프리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52)가 요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이 세우는 인재양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직접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윈프리는 18일 남아공의 한 라디오 방송 토크쇼에 출연해 그녀가 왜 5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여학생을 위한 인재양성학교를 설립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고 프리토리아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의해 양육된 경험이 있는 윈프리는 언젠가 남아공의 과정으로 지역을 방문, 어린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한 방에 7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

그녀는 "세계 어디를 방문해도 남아공에서처럼 학생들이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고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곳을 보지 못했다"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기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광주대 평생교육원 자연법칙

지리풍수학 무료 시민 공개 강의= 2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대 종묘도서관 5층·장묘법, 음·양택, 수백·유산록 등 소개. 011-609-8117, 670-2161

▲장의회 지리풍수학회 무료 공개 강좌=26일(토) 호남대 쌍촌캠퍼스, 오후 2시부터 6시. 풍수지리 천년의 허와실 영상 강의 등. 011-608-4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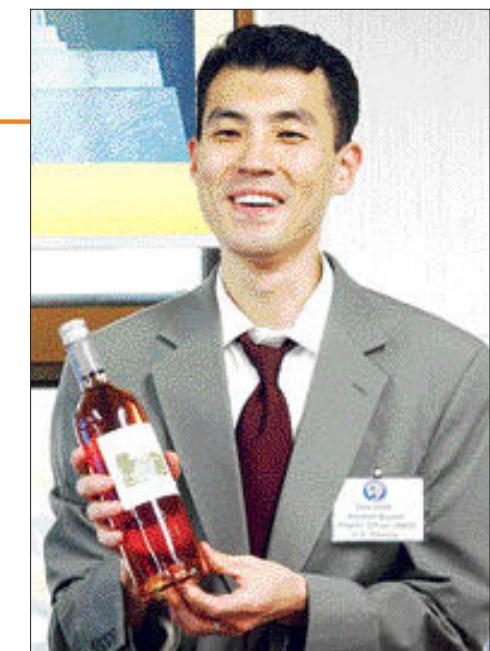
▲무등클럽 월례회=21일(월) 오후 7시 해동할어. 515-3345

▲모집

▲제 14기 광주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모집=8월30일부터 9월25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12시 강의. 국악·무용·문화·미술·

■ 광주서 '1일 소믈리에' 변신 주한 미 대사관 존 Y.최 지역총괄 부담당관

“와인으로 펼치는 문화외교 뿐듯”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대중음악의 맛이라는 것이다.

그는 "와인은 미국인들의 저녁식사에 빠지지 않을 만큼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면서 "와인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루 1~2잔 정도의 와인은 건강에도 좋다"고 와인에 찬사를 했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햄버거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도 프랑스와 '차별화된' 와인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존 Y.최(33) 지역총괄 부담당관이 '1일 소믈리에'(와인감별사)로 변신했다. 지난 18일 광주 아메리칸 코너(광주 무등도서관 2층)에서 열린 '미국 와인 문화 및 와인시음회'에서 그는 와인 강사로 2시간 동안 광주 시민들을 만났다.

와인기고가 활동...소믈리에 양성도

외교관 신분이 아닌 와인강사로의 외도(?)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 행사도 미국의 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문화외교'라고 할 수

있다"며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아 문화외교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서울 한남동 외교가에서는 제법 유명한 와인전문가다. 한 살래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U.C 버클리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대학교수를 거쳐 지난해 9월 주한 미 대사관 지역총괄 부담당관으로 부임했다. 지난 2004년 외교관 생활을 하기 전 '온라인 와인쇼퍼(WineShopper.com)'와 '와인 닷컴'(wine.com)에 와인기고가로 활동했으며 온라인 와인학교인 'WineSpectatorSchool.com'의 공동설립자로 소믈리에를 양성하기도 했다.

그가 와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U.C 버클리대학 1학년 때. 학교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처음 와인을 마신 그는 '특별한' 맛을 느끼지 못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차례 와인을 접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혀끝에 와닿는 와인의 매력에 품 빠진후 전문서적이나 잡지 등을 구해 본격적인 와인공부를 시작했다. 주말과 방학 때는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미국 최대의 와인주산지 Napa밸리와 Sonoma 등을 찾았더니며 와인의 생산과 제조과정 등 전문영역에도 관심을 가졌다.

미국 와인은 달콤한 대중음악의 맛

와인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그의 미국와인에 대한 자부심 역시 대단하다. '와인증가'인 프랑스 와인이 '가까이 하기엔 조금 먼' 클래식의 맛이 느껴진다면, 미국와인은 일반인들도 쉽게

홈런왕 김봉연, 이번엔 골프 해설가로



'J 골프' 유러피언 시니어 투어 구수한 입담

나운서, 박가민 해설위원을 도와 골프 해설을 한다.

김 교수는 이미 진행된 지난 4월 대회 녹화 방송 해설에서도 해박한 골프 지식과 구수한 입담으로 핵심점을 받은 상태.

그는 지난 1972년 고교야구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간판타자 출신으로 프로야구 출범한 1982년 홈런왕에 올랐고 이듬해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 1986년 생애 두 번째 홈런왕, 지명타자 골든글로브를 수상하며 거포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그는 1983년 전반기를 마친 뒤 불의의 교통사고로 무려 300마늘을 퀘에는 대수술을 받고도 29일 만

에 그리운데 복귀하는 부상 투혼을 발휘했고 지난 2001년부터 충북 읍성에 위치한 극동대 전임교수로 교양체육 과목을 강의하는 교육자로 강단에 섰다.

1985년 골프채를 잡아 21년 경력으로 상금 수준의 골프 실력을 가진 그는 J골프의 장타 대결, 페팅 도전 등에 출연한 계기가 돼 개인별 해설가를 맡게 됐다.

지난 해 3월 티칭 프로 자격을 얻은 그는 "프로야구 현장과 골프를 치며 필드에서 익힌 경험을 이론과 잘 접목시켜 시청자들이 골프를 쉽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 '사랑나눔' 봉사활동 펼쳐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하남석)는 지난 19일 1천7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광양·순천·남해·하동 지역의 24개소 자매마을과 18개소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호나우두 前 부인 시카렐리 브라질 최고 '섹시녀'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나우두(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전 부인 모델 겸 TV 사회자 다니엘라 시카렐리(25)가 올해 브라질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으로 선정됐다.

19일 브라질 유력 시사주간지 이스토에(ISTOE)에 따르면 시카렐리는 남녀를 통틀어 올해 브라질에서 가장 섹시한 50명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시카렐리는 지난해 2월 호나우두와 프랑스 파리 외곽 샹탈리 성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활동이 다소 뜸해지는 바람에 모델계의 경쟁자인 카롤리나 비텐부르에게 '대표 섹시녀' 자리를 내주었다.

시카렐리는 훈련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나우두와 3개월간 부부 생활을 하다 전격적으로 결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인사

◆국세청

◇서기관(승진) ▲국세청 총무과(고종) 이근희 ▲재정기획관 박동수

▲감사담당관 정경석 ▲국제협력담당관실 안종주 ▲징세과 정철우

▲법무과 구진열 ▲심사과 유학수

▲원천세과 이복희 ▲소비세과 김창섭 ▲조사과 송기봉

▲조사2과 한재연 ▲국제조사과 송바우

▲세원정보과 권오철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행정) 김상진 ▲개인납세과 박득룡 ▲조사1국 1과 신수원

▲조사1국 2과 이만수 ▲조사2국 2과 김두홍

▲조사3국 3과 박석찬 ▲조사3국 4과 최영희 ▲국제조사3과 정달성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이선원

▲조사1국 3과 차동욱 ▲조

사2국 2과 이민수 ▲조사3국 2과 권영택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최재웅 ▲조사1국 2과장 한선동

▲감사관 신규석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과장 손동근 ▲조사1국 2과장 손승락 ▲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장 안광원

▲조사1국 1과장 김안석

◆해남군

◇행정5급(승진) 회원면장 전성술

◇신규 ▲간호8급 보건소 김세정

의료기술 9급 보건소 이연순 ▲김민주

▲기능10급 총무과 강석수 ▲김동일

▲문화관광과 정윤성 ▲김경숙

과 박창과 이동복 ▲김영매

◆보성군

◇행정5급(승진) 회원면장 고재윤

◇6급(승진) ▲벌교읍 조태기 ▲조성면 정영규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뜨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불滾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